

평창군시설관리공단, 가로화단 환경 정화 나서

✎ 우정연 기자 | ㉠ 승인 2024.07.11 17:29

1단체 1 화단 가꾸기 사업의 하나



가로화단 정비 [사진=평창군시설관리공단]

[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]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11일 '1단체 1 화단 가꾸기 사업'의 하나로 평창읍 상리 일원에서 가로화단 정비에 나섰다.

이날 공단 임직원은 15명이 도로 인접 화단 잡초 제거와 도로변 쓰레기 수거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.

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1단체 1 화단 가꾸기 사업은 공용화단을 군 관계단체가 도맡아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이다.

이는 평창군 주요 정책인 조화되는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펼쳐진다.

최순철 이사장은 “지역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”며 “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군 협력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경영 사업으로 지역과 조화되는 성장을 이루겠다”고 말했다.



가로화단 정비 [사진=평창군시설관리공단]



우정연 기자 woos2705@naver.com